경관적 재구성¹⁾을 통한 ‘장성 필암서원’ 경관짜임의 讀解

노재현* · 허준* · 최종희**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Landscape Configuration Reading of 'Jangseong Pilmaseowon' through the Recomposition of Landscape

Rho, Jae-Hyun* · Huh, Joon* · Choi, Jong-He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landscaping elements such as location, situation and feng shui included in the spatiality of Jangseong Pilmaseowon and to interpret aesthetic features of visual-perceptual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its arrangement.

As it is shown in 'Pilamseowon', 'Pilbongseowon', and 'Gimhaseoseowon' appearing in antique maps, the awareness considering 'Pilam' as 'Pilbong' and 'Gimhaseo' was revealed. Mountain Pilamsan[Mountain Mulpilsan] which is the location of seowon and Pilam(Brush-shaped rock) is the core of establishment of location identity of Pilamseowon and the symbol of Haseo Kim In-hu, which shows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Ingeoljiryeong(人傑地靈: 'a place derives reflected glory from an illustrious human') based on connection. Pilamseowon shows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living in stream(溪居) facing panoramic 'jeungsan field' without Ansan(案山). Based on the teachings of Neo-Confucianism, Village Maekdong which is the birth place of Haseo, Pilam, seowon geomancy considering the Danbonghamseo-type(丹鳳含書形) geographical shape, formative reflection, Pilamseowon and structures revealed in building naming more clearly show symbolic landscaping features resulting from 'theory of 'Heaven-Man Unity'(天人合一)' representing the union of nature and human, than other seowons. The maximization of centrality through connected yards constructed with the 'jeondang hujae(前堂後齋)' arrangement in the order of Whakyeon-lu, Chenogjeol-dang, Jindeak-jae or Sungui-jae, and Woodong-sa is a unique feature of spatial frame of Pilamseowon. In addition, it reveals the centrality reinforced with 'the move of inner center through arrangement of Kyeongjang-kag and Kyesengbi inside 'YuSik(遊息)' space and religious space' and the landscaping arrangement of Pilamseowon from installation and device for reinforcement of territoriality. Moreover, it was found that orders and aesthetic features based on Neo-Confucianism were logically realized in the formation of Pilamseowon with visual and compositional landscaping arrang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view centrality through composition of windows and doors', 'securement of visual transparency through framing and duplication', and 'realization of hierarchy through height of jaesil toenmaru'.

The meaning system and spatial or visual aesthetic features of Pilamseowon newly arranged and interpreted through landscaping recomposition is not a coincidental but inevitable result. It is another resource basis and an element that can improve the internal exuberance of Pilamseowon. This landscaping reading study is expect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andscapes of Pilamseowon and elevate the sensibility of unrevealed cultural landscapes.

Key word: Pilam, Haseo Kim In-hu, Symbolic Landscape, Centrality, Territoriality

[†] Corresponding author : Choi, Jong-Hee, Division of Horticulture & Landscape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302-735, Phone : +82-42-520-5918, E-mail : jhchoi2000@pc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성 필암서원의 입지·형국·풍수지리 등 장소성에 담긴 의미경관적 요소와 서원배치에 따른 시지각적 공간구성에 담긴 미학적 독해를 위해 시도되었다.

고지도에 표기된 '필암서원', '필봉서원', '김하서서원' 등에서 보이듯 '필암'은 곧 '필봉'이며 이는 '김하서'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서원의 배산 필암산(문필산)과 필암(붓바위)은 필암서원 장소정체성 구축의 핵심이며 하서 김인후의 상징으로, 연고성을 바탕으로 한 깊은 인접지령(人傑地靈)의 관계로 엮여있음이 읽혀진다. 필암서원은 안산(案山) 없이 파노라믹한 '증산들'을 안대(案對)로 한 계거(溪居)의 입지특성을 보인다. 하서의 태생지인 맥동마을과 필암 그리고 '단봉합서형(丹鳳含書形)' 형국을 반영한 서원의 터잡기와 조형적 반영 그리고 건물 '이름붙이기'에서 드러난 필암서원의 액호(額號)와 각 건물의 당호(堂號) 또한 성리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식 결과에 따른 기호경관적 특질은 여타 서원 보다 뚜렷하다.

확연루(누문)-청절당(강당)-진덕재·송의재(재실)-우동사(사당)의 「전당후재형」 배치로 구축된 교점마당을 통한 중심성의 극대화도 필암서원 고유의 공간 프레임적 특성이다. 여기에 더하여 '유식공간과 제향공간내 경장각과 계생비 배치로 얻어진 내심 이동'을 통한 중심성의 강화' 그리고 '영역성의 강화를 위한 시설과 장치' 등에서 필암서원의 공간구성상의 경관짜임이 읽혀진다. 또한 '창호 구성을 통한 조망 중심성의 강화', '「틀에넣기」와 중점을 통한 시각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재실 빗마루 높이를 통한 위계성의 구현' 등의 시각구성상의 경관짜임을 통해 성리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질서와 미학성이 필암서원 조형에 논리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독해하였다.

이와 같이 경관 재구성을 통해 정리되고 새롭게 읽혀진 필암서원의 의미체계와 공간 및 시각구성상의 미학성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 결과로, 장성 필암서원의 내적 충일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며 또 다른 자원기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경관독해의 결과가 필암서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드러나지 않은 문화경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필암, 하서 김인후, 상징경관, 중심성, 영역성

1. 서론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적 가치관이 응축된 결과물이자 인간 활동을 담은 의미체(meaningful object)이다. 자원적 가치로 논의하자면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 교육의 전형이며 주변과 조화되는 특유의 경관과 건축양식을 간직한 탁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다(<http://www.heritagechannel.tv>). '장성 필암서원'은 2015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한국의 서원'으로 선정된 9개 서원 중 하나이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선의 성리학을 성숙시키고 실현한 공간일 뿐 아니라 건축구조와 형식이 자연과 일체되는 경관을 완성하고 있는 점 등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재위원회, 2013).

서원은 전통조경분야에서 또한 중요한 영역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위계성, 영역성 그리고 중심성 등의 규칙적 경관짜임은 한국 정원유형 중에서 매우 독특하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원의 입지 및 조망 특성 등 전형적 조형미학적 질서는 현대조경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노송호, 2006; 김정수, 2012; 고경수, 2013). 그러나 일련의 연구(노재현과 신상섭, 2009; 노재현과 신병철, 2012)에서 보듯이 한국의 서원은 일면(一面)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경관짜임의 특수성이 발

견된다. 요컨대 지형조건에 따른 안대(眼對)는 물론 축선의 경직성 정도, 건물과 담장의 배치, 누대와 연못의 장식성 그리고 세부 의장 디테일 등이 그것이다.

필암서원을 연구의 장(場)으로 처음 올린 이는 송정현(1981)과 변시연(1982)으로, 이들은 문헌분석에 기초해 필암서원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이후 조상순(1988a·1988b)과 조상순과 이상해(1988) 등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필암서원지」 내용을 중심으로 서원의 건축 특성과 조건 이후 복설과정 그리고 현 위치의 이전과정 등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였다. 특히 상기 연구에서는 필암서원이 전당후재 방식으로 건립된 서원 중 유일하게 평지에 건축된 사례라는 정설(定說)과는 달리 현재의 조형이 경사지에 기반한 것임을 밝혔다. 이후 김상엽(2000)은 누문 확연루를 포함한 유식공간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한지만 등(2000)은 선암사, 독락당과 함께 필암서원의 공간구성적 성격을 단위 영역의 구성과 그 조합적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필암서원을 대상으로 한 조경 분야의 연구로는 이원호(2011)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2001~2009년간 실행된 성역화사업으로 필암서원의 3배 면적에 이르는 부속시설이 신축됨으로써 서원의 왜소화현상이 심각해졌음을 지적하고, 과도한 식재로 야기된 식재관리의 문제를 우려하였다. 김정수(2012)는 필암서원은 양택풍수가 절대적으로 적용된 친환경건축이며, 공간확장의 방법으로 채(棟)의 분화를 반복함으로써 닫힘과 열림을 통해 바람을 다스렸다고 설명하였

다.

한편 황영수와 김정재(2003)는 도동서원을 대상으로 중첩성, 시각틀 구성 그리고 빛과 음영의 대비를 통해 현상적 투명성의 개념을 설명했다. 노재현과 신상섭(2009)은 남계서원의 경관짜임을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풀이하였으며, 노재현과 신병철(2012)은 도동서원에 투영된 중용(中庸)의 미학을 경관짜임과정으로 풀이하였다. 김덕현과 이상호(2013)은 도산·병산·옥산·도동서원 등 4개 서원의 입지와 내부공간 분석을 통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할 수 있는 전망경관, '유식장소의 구비', '전지후고'의 지형에 전당후묘로 구현한 유교정신' 그리고 '교학적 의미로 충만한 당호(堂號)와 현판에 깃든 기호경관(記號景觀)'을 한국서원의 특질로 결론지었다. 고경수(2013)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9개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조영자의 사상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각 서원의 입지, 공간구성 및 배치 등의 요소를 풍수지리적[龍·穴·砂·水]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박정해(2013)는 서원 건축의 비보풍수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필암서원의 역사성과 건축변화과정, 형국과 풍수지리, 강당과 재실 그리고 사당의 건축배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필암서원의 상징적 경관이미 등을 총합한 기호학적 연구나 서원 시설의 배치에 따른 시지각적 조형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된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필암서원은 완전한 평지에 입지한 서원으로 남북자오선상(南北子午線上)에 중심축을 설정하고, 강당이 북향하는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특성 정도만이 공론화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미학성을 분석 또는 해석한 자료는 없다. 이는 역으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경관이미와 공간구성 등의 경관짜임적 특수성이 어떻게 필암서원 조형에 구현되었는가를 조정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할 당위성을 말해준다. 이는 등재 후보 9개 서원의 보편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수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성 탐구를 통한 필암서원 고유의 경관독해(景觀讀解)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인간에 의해 지각되는 경관은 대부분 조형주체에 의해 문화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의 독해는 필수적이며 대상경관은 텍스트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필암서원의 경관 독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원 조형자의 텍스트 경관을 읽어야 한다. 최근의 문화재정책은 보존에 그치지 않고 활용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독해작업은 필암서원에 대한 이해와 이야기거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의미경관이나 특정 경관현상에 대한 인지(認知)는 인간 개개의 심상에 내적·주관적 표상으로 이미지화 되고 응결되고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성 필암서원에 대한 입지 및 장소성 등 의미경관적 요소와 서원내 공간 및 시각구성에 담긴 경관미학적 독해를 위해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성 필암서원은 호남지방의 유종(儒宗)으로 추앙 받는 하서 김인후(金麟厚: 1510~1570)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서원으로 선조 23년(1590년) 호암(壺巖)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등이 주도하여 기산리(岐山里)에 초건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인조 4년(1624년) 황룡면 증산(甞山)에 복설(復設)되었고 현종 3년(1662년) '필암(筆巖)'이란 액호(額號)를 받았다. 현종 13년(1672년) 현 위치로 이전, 정조 10년(1786년) 고암(鼓巖) 양자징(梁子徵: 1523~1594)을 추가 배양했으며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가운데 하나(김상엽, 2000: 45)로 1975년 4월 23일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필암서원의 액호와 상징경관, 주변 형국과 풍수지리 그리고 서원 경내 건물 및 조형요소 배치에 따른 미학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원조형은 두가지 관점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하나는 입지선정이며 둘째는 건물배치이다(김정수, 2012: 168). 이에 따라 본 연구내용은 필암서원의 입지 등에 따른 의미경관적 요소의 독해와 필암서원 공간 및 시각배치상의 고유한 경관짜임의 독해로 대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1975년 간행된, 「필암서원지」²⁾(전13권)와 하서전집(전4권) 그리고 관련 논문과 사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장성 관련 군현도와 전국지도를 분석, 필암서원의 기재 명칭과 주변 지명을 파악함으로써 액호의 상징성을 검토하는 한편 필암서원 주요 건물의 당호와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항공사진 및 문헌을 검토하여 형국 및 풍수지리적 특징을 개관하는 한편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합하여 서원내 담긴 의미경관적 요소를 탐구하고 필암서원의 변화된 경관요소 등을 추출하였으며 필암서원과 유사한 배치를 보이는 서원과의 비교를 통해 필암서원 고유의 조형성을 도출하였다.

현장연구는 답사를 통해 지형을 간산(看山)하고 서원 내부의 공간 및 시각구성의 현상학적 특성을 논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의 배치구조, 담장, 문과 창호의 구조 및 개방성 정도를 비교 기록하고 측정하였다. 특히 배치평면도를 도해하여 도상에 나타난 영역성, 중첩성 그리고 중심성 등의 형식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원의 영역을 담장과 마당영역으로 구분하고 공간별 면적과 면적비를 계산하였으며 공간 내심(內心;

incenter)의 위치를 통한 중심성을 파악을 목적으로, 각 마당내 가상의 내접원(內接圓: inscribed circle)을 작도하여 내심의 이동을 독해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입지구구성적 경관짜임의 독해

1) 필암의 상징성과 하서 김인후

군현도 8점과 전국도 3점 등 총 11점의 지도에 묘사된 필암서원의 명칭과 주변 지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그림1 및 표 2와 같다. 전국도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서는 필암서원이 발견되지 않는 대신 '필암(筆巖)'과 황룡천(黃龍川)이 공통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9점의 지도에 명기된 서원 명칭은 '필암서원'과 '필봉서원' 각 3건, '김하서서원(金河西書院)' 2건, 그리고 필암원(筆巖院) 1건 등으로 분류되었다. 필암서원 주변에 명기된 지명 또한 필암 3건, 필암산 2건이 발견된다. 여기서 보듯이 '필암'과 '필봉(筆峯)'은 모두 '붓바위'의 이미지와 일치된다. 필암은 필암서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맥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바위로 필암이나 필봉은 필암서원 장소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이자, 하서 김인후의 근원이며 상징어이기도 하다. 한편 1872년 지방도와 1899년 편찬된 장성군읍지에는 현종 13년(1672년) 사액받기 전의 명칭인 '김하서서원(金河西書院)'이라 표기되고 있음을 볼 때, 지도 제작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필암'은 곧 '필봉'이며 이는 '김하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지도에서 서원의 배산 표기는 필암산, 문필산(文筆山) 또는 문장산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밖에 지도에는 필암서원의 배산임수형 입지 특성을 대표하는 문장산(文章山)과 황룡천이 주요 경관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 고지도에 보이는 필암서원과 주변 지명

〈자료〉 <http://kyujanggak.snu.ac.kr>

표 1. 고지도에 나타난 필암서원

구분	고지도명	제작년도	서원명	주변 경관
군현도	해동지도	1750년대 초	筆岩書院	
	광여도	19C	筆峯書院	
	1872년 지방도	1872년	金河西書院	筆岩, 文章山
	여지도	편찬연대 미상	筆峯書院	
	지승	17세기 중엽	筆峯書院	白峙
	비변사인방안지도	18C 중엽	筆巖書院	
	장성군읍지	1899년	金河西書院	文章山
전국지도	장성군도	1927년	筆巖院	筆岩山, 文章山
	동여도	19C	표시 없음	筆岩, 黃龍川, 鳳凰淵, 鳳凰岩
	청구도	1843년	筆岩書院	鳳淵
	대동여지도	1861년	표시 없음	筆岩, 黃龍川, 文章山

필암서원의 액호 필암은 배산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서원 남서쪽 1.1km 떨어진 맥동마을 초입에 위치한 높이 약 1.7m, 둘레 90cm에 불과한 작은 선바위(立石)(그림 2 참조)의 명칭이기도 하다. 이 바위 측면에 "筆岩"이라 음각된 바위글씨는 조선 영조때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³⁾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터를 잡은 곳에 붓모양의 산(文筆山)이나 바위가 있으면 지기(地氣)와 소응(昭應)하여 대학자가 난다고 한다(김두규, 2004). 필암서원이 황룡면 필암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이곳이 하서의 출생지이자 강학처와 치척(咫尺)거리이며 그의 묘소 또한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필암서원 경내의 묘정비(廟庭碑)에는 "하서의 고향인故里(故里)에 바위가 깎은 듯이 서 있어 형상이 붓처럼 예리한데, 서원이 가까이 있다 하여 이로써 호(號)한 것이라 한다(필암서원, 1975: 23-24)"⁴⁾고 적고 있음에서도 필암과 하서의 유착(癒着)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된 9개 서원 중에서도, 필암서원은 유독 주배향자와 깊은 연고성(緣故性)을 바탕으로 한 인걸지령(人傑地靈)의 관계로 엮여있으며⁵⁾ 그 중심에는 김하서와 필암 그리고 맥동마을이 존재한다.

그림 2. 필암과 '筆巖' 바위글씨

2) 형국으로 읽은 경관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서원 대부분은 산지(山地)의 구릉 밑에 산수경관을 찾아 장소를 택하였으나 오직 필암서원만이 전면에 펼쳐진 파노라믹한 ‘증산들’을 안대로 선택하고 있다(고경수, 2013). 필암서원 건립 이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6권 장성현(長城縣) 산천조에는 ‘문필천(文筆川)’은 “장성현 서쪽 7리에 있는데 송현에서 나온다.”라는 기록이 있으나 지도상에 문필천 표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문필천은 현재의 통안천인 것으로 보이며 「필암서원지」에서는 문장천으로, 주민들은 이를 필암천으로 인식하고 있다. 「필암서원지」 권지 일에서는 서원 앞의 문장천(文章川)을 명당수(明堂水)로, 좌측의 기산(岐山)과 우측의 추산(秋山) 그리고 향로봉(香爐峯)을 진산(鎭山)으로 보고 있다. 조상순과 이상해(1998)는 필암서원이 두 번의 이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입지특징을 ‘계거(溪居)’로 단정하였다고 피 구글 어스(Google Earth)로 조감한 그림 3의 필암서원의 입지는 문필산과 통안천이 뚜렷한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그림 3. 문장산과 필암서원의 항공사진

자료: earth.google.com 필자 재구성

그림 4. 필암지 형국도와 비교한 필암서원 주변 형세

자료: 장영훈(2011), p216. 에 필자 재구성

장영훈(2000: 196)은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을 좌자오향(子座午向)의 전형적인 단봉합서형(丹鳳合書形)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단봉합서형은 ‘임금의 조서를 입에 물고 날아오는 봉황 형국’으로 합서를 물고 있는 단봉의 주둥이를 혈(穴)로 사당인

우동사의 터가 택지되었다고 해석한다(그림 4 참조). 서원 명칭이 조서라는 종이와 겹맞게 필암(筆岩)인 점도 맞아 떨어짐을 볼 때 필암서원의 액호 ‘필암’은 서원의 배산과 문방사우(文房四友) 형국 맥락으로까지 이어진다. 필암서원 봉황의 날개들은 장풍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펼쳐져 있는 반면 봉황의 머리 부분은 빼어난 잉(孕) 현상을 보여준다. 봉황은 상서롭고 귀한 상상의 새로, 또 고고한 인품의 인격자로 나가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천인호, 2011: 211).

그림 5. 경장각 주녀에 새겨진 용(abc)과 봉황(d)

하서와 봉황과의 관계를 동일시한 인식 사례는 인종이 하서한 묵죽도(墨竹圖)를 보관하는 경내 경장각(敬藏閣)⁶⁾의 귀공포 주녀의 디테일에서도 확인되는데 삼면은 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면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다(그림 5 참조). 또 서원전도에서 우동사 후면에 묘사된 절의(節義)의 상징 ‘대나무 숲(竹田)’은 묵죽도에 드러난 이미지는 물론 이념과 맞닿아 있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를 반영한 필암서원의 터잡기 등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식 결과임이 읽혀진다.

3) 당호(堂號)로 읽은 경관

필암서원의 액호 ‘필암’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동마을 초입에 입지한 붓바위에서 유래하며 하서 김인후를 상징한다. 학연루의 당호(堂號) ‘학연’은 ‘학연대공(廓然大公)’에서 온 말로 군자의 학문하는 태도를 뜻⁷⁾하며 강당 ‘청절당’과 사당 ‘우동사’의 당호는 각각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쓴 「하서신도비문」 중 “淸風大節”과 “天祐我東鍾生河西金先生”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편 진덕재와 송의재는 군자의 도리를 담는 도학정신에 근본을 둔 당호임이 확인된다. 한편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필암서원 고유의 도입시설인 경장각의 ‘경장’은 ‘왕가 조상의 유물을 공경(恭敬)스럽게 소장(所藏)하라’는 의미에서 연유되었다. 건물 이름짓기에서 보여주듯이 필암서원의 당호 역시 성리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교학

표 2. 필암서원 주요 건물의 당호와 의미

구분	堂號	유래	현판	
			글쓴이	이미지
筆巖書院		하서의 태생지인 맥동에 붙처럼 예리한 형상의 붓바위에서 연유	屏溪 尹鳳九 (1681~1767)
외삼문 (누문)	廓然樓	‘廓然大公’에서 온 말로, 거리낌 없이 넓게 탁 트여 크게 공평무사함. 널리 모든 사물에 사심이 없이 공평한 성인의 마음을 배우는 군자의 학문하는 태도를 의미함 - 정자(程子)-	尤庵 宋時烈 (1607~1689)
강당	淸節堂	우암이 쓴 하서신도비문 중 ‘淸風大節’에서 인용	同春堂 宋浚吉 (1606~1672)
사당	祐東祠	하서선생신도비문 중 “天祐我東鍾生河西金先生”이란 글귀에서 인용 “하늘의 도움[祐]으로 인하여 우리 동방[東]에 태어난 이가 하서 김선생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됨	朱子(1130~1200)書 集子
동재	進德齋	周易, “君子가 進德하고 修業함은 때에 미쳐<道>를 펴고자 함이에서 출전	同春堂 宋浚吉 (1606~1672)
서재	崇義齋	‘義’를 崇尚하는 도학정신
敬藏閣		‘왕가 조상의 유물을恭敬스럽게 所藏하랴’는 의미	正祖(1752~1800)

적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의미망은 현판과 함께 기호경관을 구축하는 상징요소이다(표 2 참조).

2. 공간구성적 경관짜임의 독해

- 1) 「전학후묘」와 「전당후재」를 통한 중심성의 극대화
필암서원의 경외지역인 진입공간은 교량과 홍살문 그리고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경내지역은 제향공간, 강학공간, 유식(遊息)공간, 관리공간 그리고 지원공간 등 5개의 기능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계를 「필암서원지」에 묘사된 「서원전도(書院全圖)」로 도해하면 그림 6a와 같다. 대부분의 건물 배치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지만 다만 동재 후면의 노비 거주 공간인 차노사(差奴舍)가 철거되었고 관리공간 중 변소가 1동이 추가되었다. 또한 1926년 우동사 전면 왼쪽에 조성한 석등

a. 서원전도(필암서원, 1975)로 본 기능공간

b. 항공사진으로 본 필암서원(자료: 김치년, 2011: 144쪽 필자 재구성)

그림 6. 필암서원의 공간구성

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 그림 7은 필암서원의 평면도로 현황은 물론 사라진 경관요소를 재구성한 결과이다. 그림의 연당과 정자(기호 t)는 후술될 조상순과 이상해(1998), 김상엽(2000)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필자가 추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면에 강학공간, 후면에는 제향공간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이지만 동·서재가 강당 뒤에 위치하는 「전당후재(前堂後齋)」의 형식을 보임에 따라 강당이 사당을 향해 북향하고 있다. 현존하거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당후재형 국내 서원은 필암서원을 포함하여 도합 9개소로 확인된다(표 1 참조). 해당 서원 모두는 16C 후반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이 중 8개 서원은 경기 및 호남권에 입지하는 기호학파의 서원이며, 경북 상주군에 입지한 홍암서원의 주배향자 또한 기호사림과 노론을 이끌던 예학(禮學)의 대가인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⁹⁾임을 볼 때 전당후재는 기호학파 서원의 전형적

인 배치유형임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도 필암서원만이 현존 서원 중 유일하게 유식공간, 강학공간 그리고 제향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용인의 심곡서원 또한 복원과정에서 변형되었지만 원형은 유사한 형태였던 것으로 고증되고 있다(이희봉, 2010). 단지 심곡서원의 유식공간은 중심축에서 벗어난 비대칭 형태이다. 나머지 서원 중 양재(兩齋)를 모두 갖춘 서원은 봉암서원을 비롯하여 덕양서원, 덕봉서원, 홍암서원 등 4개 서원이다.

한편 강당의 향과 조망의 개방 형태를 볼 때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봉암서원과 신안서원 등 3개 서원이 사당으로의 조망이 열려 있으며 남강서원은 양쪽으로 전망이 향해 있으며 나머지 서원은 외삼문으로만 강당의 조망이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참조). 필암서원은 「전당후재(前堂後齋)」의 형식을 취함에 따라 강당 전면(前面)은 창호로 폐쇄하여 외부시선을 차단하는 한편 배면(背面)은 최대한 사당으로의 조망을 개방하는 배치형태를 취함으로써 사당과 강당이 교접하는 마당의 중심성을 극대화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필암서원은 「전학후묘」와 「전당후재」의 배치뿐만 아니라 강당과 사당이 교접하는 마당을 공유하는 사당 중심형 서원으로서의 특수성이 발견된다.

2) 유식공간과 제향공간의 내심 이동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유식공간 등 3개 공간 영역의 무게 중심이 전체 주축상 어떠한 조직성(組織性)을 보이며 펼쳐져 있는가를 확인할 목적으로 3개 영역의 내심 이동을 살펴 보았다. 필암서원의 조망축은 학연루(유식공간)-청절당(강학공간)-우동사(제향공간)로 이어지는 남북자오선의 주축(Axis 1)을 설정하고 그 축선 상에 주요 건물을 배치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리고 정확하게 45° 꺾여 고직사-강학마당-장판각을 이루는 부축(Axis 2)이 사선으로 교차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외부공간은 평지에 조영된 관계로 지대의 고저차로 인한 공간의 위계성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축선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공간의 깊이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방형(方形)의 담장으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유식·강학·제향공간 간에 결절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마당과 크고 작은 협문과 창호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다. 이 중 강학공간은 건물영역과 마당영역의 중심이 일치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제향공간과 유식공간의 내심은 강학공간으로 치우쳐 이동되는 특성이 발견된다(그림 8의 화살표 주목). 자세히 살펴보면 강학공간의 북서측 즉 제향공간의 전면 서측에는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경장각과 계생비(繫牲碑)¹⁰⁾가 배치함으로써 비로써 마당영역과 건물영역의 중심이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마당은 개별 요소를 집중시키면서 시각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일종의 통합(unity)을 창출한다.

그림 7. 재구성된 필암서원의 배치도

〈범례〉 a: 佑東祠(祠堂), b: 藏板閣, c: 汗文舍, d: 典祀廳, e: 內三門, f: 藏書閣, g: 崇義齋(西齋), h: 敬藏閣, i: 庫直舍, j: 繫牲碑, k: 進德齋(東齋), l: 行廊寨 m: 清節堂, n: 便所, o: 倉庫, p: 廓然樓(外三門), q: 紅蘿門, r: 下馬石, s: 石燈, t: 蓮塘과 亭子, u: 差奴舍

〈자료〉 <http://www.orientalarchitecture.com> 필자 재구성

표 3 전당후재형 서원의 현황

서원명	건립시기	소재지	주배양자	배치형태 [*]	강당의 개방 방향
필암서원	1590년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김인후(1510~1570)		사당
심곡서원	1650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조광조(1482~1519)		외삼문
봉암서원	1561년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변이중(1546~1611)		사당
덕양서원	1589년	전남 곡성군 옥곡면 덕산리	신승겸(? ~927)		외삼문
덕봉서원	1695년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2리	오두인(1624~1689)		외삼문
홍암서원	1702년	경북 상주군 내서면 연원동	송준길(1606~1672)		외삼문
남강서원	1803년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교촌리	송시열(1607~1689)		사당·외삼문
신안서원	1588년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한호겸(1535~1579)		사당
겸천서원	1706년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조유(생몰년 미상) 등 옥천조씨 3인		외삼문

* 배치형태의 모식도는 이상선(2009), 55쪽을 필자 재구성함

이러한 목적으로 담장 외곽과 건물 내부의 범위를 원형으로 도해(圖解)한 뒤 3개 기능공간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면적과 면적비를 분석한 결과, 유식공간의 건물영역(Cir. a) : 강학공간의 건물영역(Cir. b) : 제향공간의 건물영역(Cir. c)은 58.1 : 54.8 : 47.2 이었으며 유식공간의 마당영역(Cir. a') : 강학공간의 마당영역(Cir. b') : 제향공간의 마당영역(Cir. c')은 32.0 : 25.4 : 22.0의 비율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에 따른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건물영역/마당영역의 비는 약 1 : 1로 시각적 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은 비교적 중심성이 심화된 반면, 유식영역은 빈 마당의 영향으로 그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듯 보인다. 이와 같이 필암서원의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유식공간은 각각의 영역성을 가진 채 중심성을 확보한 배치형태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청절당과 우동사 그리고 동·서재로 에워싸운 마당의 존재가 있었다.

표 4. 각 공간유형별 규모

구분	제향공간 (Cir. C)	강학공간 (Cir. B)	유식공간 (Cir. A)	장관각	고직사
건물영역	47.2	54.8	58.1		
마당영역	22.0	25.4	32.0	29.3	20.1
건물영역	1,748.9	2,357.4	2,649.9		
마당영역	379.9	506.5	803.8	673.9	317.1
담장영역	936.1	1,480.2	1,720.9		
건물영역/마당영역 비	4.60	4.65	3.29

그림 8. 유식공간과 제향공간의 중심 이동

〈자료〉 필자 작도

〈범례〉 원형 실선: 공간별 건물영역, 원형 점선: 공간별 마당영역, ⇄: 내심 이동 방향

이상의 독해 결과를 종합하면 필암서원의 공간은 사당을 정점으로 하되 강당과 양재 그리고 경장각과 계생비의 강당공간과 확연루 중심의 유식공간에서의 내심 이동을 통해 보다 강한 내부지향적 중심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영역성의 강화를 위한 시설과 장치

필암서원에서 강당영역과 사당영역의 통합을 통해 교접된 마당영역을 확대하면, 마당과 함께 이를 둘러싼 건물들을 포함한 전체 공간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필암서원의 중심은 다른 서원의 중심과는 보다 그 형태에 있어 매우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서원은 명료한 위계성과 영역성을 갖고 있다(노재현과 신병철, 2012: 44). 필암서원은 계층적 질서인 위계성을 강화하기가 매우 열악한 평지형 서원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독 영역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동·서재, 강당인 청절당, 사당인 우동사에 의해 둘러싸인 마당의 영역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 9. 주요 기능공간의 담장 영역
〈자료〉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모형에 필자 재구성

그림 9와 같이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유식공간은 평균높이 1.8m의 담장에 둘러싸여 확고한 영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공간영역별 면적은 각각 936㎡, 647㎡, 433㎡로서 제향공간 대비 1 : 1.5 : 2.2의 공간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향공간이나 강학공간에 비해 유식공간이 상대적으로 커서 비워진 공간으로 느껴지는 반면 강학마당은 강당과 동·서재 그리고 내삼문으로 둘러싸여 그 영역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유식공간의 중심인 확연루는 2층 누각이면서도 서원의 주진입로 역할을 한다. 조상순과 이상해(1998)는 1.4m 높이의 낮은 층고와 서측으로만 형성된 층계를 들어 확연루가 평지에 적합한 구조가 아닌 중산 복설기의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주목할 점은 강당 남측 후면에 연당(蓮塘) 존재를 알리는 문헌이다. 연당은 필암서원이 김인후서원으로 기산에 존재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서원 내부 혹은 인근 지역에 입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¹⁾. '하서전집(河西全集)'에 수록된 조헌(趙憲: 1544~

1592)의 '청절당제영(淸節堂題詠)'에는 '계정(溪亭)'이라는 시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연당의 경내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¹²⁾. 조헌의 생몰연대를 미루어 볼 때, 최초 건립시기에는 사묘와 함께 누정 형식의 건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이 증산에 복설된 필암서원에 문루 형식의 건축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조상순과 이상해, 1998: 75). 또한 증산에 복설된 이후에도 연당은 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현 위치에 이진한 이후에도 청절당 앞에 경내 습기를 한데 모으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겸하여 연당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진웅, 1996: 253). 또한 영조28년(1752년) 화재로 소실된 확연루를 중건하면서 쓴 것으로 보이는 역천(櫟泉) 송명흥(宋明興: 1705~1768)이 지은 '확연루상량문'¹³⁾에서도 건축적 형식이 이전의 형식을 답습하였으며 연당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김진웅, 1996: 253).

그림 12에서 보다시피 확연루 경내에 계자난간을 두른 것을 고려할 때 마당내 조망의 중점이 될만한 경관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확연루와 청절당 사이에 연당과 별도의 정자가 존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유식공간 또한 고유의 기능성과 영역성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필암서원에서는 영역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진입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중앙의 강당마당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확연루 누문으로 누하진입(樓下進入) 하면 사방이 담장으로 에워싸인 큰 마당이 전개된다. 마당 전면에는 강당이 길게 버티고 있고 한쪽에 강당마당으로 이르는 굴절된 출입구가 나타난다. 출입구는 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는데, 마치 살림집의 안채로 들어가는 진입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장판각을 지나 지원공간에 이르는 협문이나, 경장각을 돌아 전사청과 지원공간의 뒤뜰에 이르는 하는 협문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된다. 이와 같이 필암서원에서의 강당마당은 정제된 곳이며 특정한 영역으로 유도되고 있다. 그림 8a에서와 같이 영역성 강화에 따라 강학공간의 중정마당을 중심에서는 4방·8방 등으로 조망이 확산 방사됨으로써 매우 강한 구심력이 유발된다.

a. 강당마당의 접근체계

b. 강당과 사당마당의 중심성

그림 10. 강당마당의 중심성

〈자료〉 <http://www.culturecontent.com> 필자 재구성

3. 시각구성적 경관짜임의 독해

1) 창호 구성을 통한 조망 중심성의 강화

정면 5칸, 측면 5칸의 강당 청절당(淸節堂) 전면은 누문 환연루(廓然樓)를, 배면은 동·서재[進德齋·崇義齋]를 향해 배치되었다. 청절당의 남쪽 면은 벽을 설치하고 창호를 달았으나, 북쪽 면은 벽체 없이 조망을 개방하여 사당을 주시하고 경모(敬慕)하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창호 구성은 환연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그림 11 참조). 청절당 전면에 분합문을 들어 올리면 환연루까지 시선이 투과되지만 평시에는 전면에 관장문을 설치하여 시각적 투시를 차단하고 반대로 배면 대청 부분으로는 개방하였다. 이는 배면 개방을 통해 동·서재 및 사당을 위호(衛護)하는 한편 유생들의 출입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김홍식, 2010: 39). 특히 평지에 조성된 필암서원으로서 담장과 창호 등으로 환연루로 부터의 시선이 강당영역까지 투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판단된다.

그림 11. 환연루와 청절당의 전·후면

서원 진입의 관문인 환연루는 방주(方柱)를 쓴 2층와가(二層瓦家)의 팔작지붕으로 문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계서원의 풍영루, 도동서원의 수월루가 경사지에 입지했던 것과는 달리 평지에 건립된 필암서원으로서 그 자체가 매우 예외적이다. 조상순과 이상해(1998) 등의 연구결과에 의해 환연루는 중산 복설시기(1624~1662)의 누문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였음이 알려져 왔다. '환연대공(廓然大公)'의 의미처럼 환연루 중심의 유식공간 마당은 넓고 비어있고 매우 관념적이다. 환연루에서 조망되는 넓게 펼쳐진 중산들과 필암들의 파노라믹한 경관은 '환연대공'의 의미에 매우 부합하듯이 외삼문이기도 한 환연루 밑을 들어서자마자 '환연한 마당'이 펼쳐진다. 2층 누대는 청절당과 같이 경외 방향으로는 판문(분합문)을 달아 시선을 차단하는 반면 경내로는 조망을 열어 두었다. 또한 환연루의 계자난간 또한 서원 경내로의 조망성을 고려한 것으로 장식성을 강

화하며 내부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유도되도록 고려하였다(그림 12 참조). 이와 같은 특성을 볼 때, 필암서원은 분합문과 창호구성을 통해 강당과 사당 그리고 동·서재로 위요된 중정(中庭)의 내부구심적 중심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림 12. 환연루의 입면도

〈자료〉 <http://www.culturecontent.com> 필자 재구성

2) 「뜰에 넣기」와 중첩을 통한 시각적 투명성

환연루의 계자난간과 기둥을 통해 청절당의 경관은 중첩되어 보이는데 정면에 대식(對植)하여 식재한 은행나무로 인해 중첩효과는 보다 극대화하고 있다. 환연루 기둥에 의한 프레임(frame)과 청절당 기둥의 프레임은 2중 구성으로 레벨 변화를 보이며 부감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환연루 안쪽으로 더 깊이 이동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배가되는데 이 때 빛과 음영의 대비가 가세하게 된다. 청절당에서 사당 우동사를 조망할 때 또한 청절당 기둥으로 전경은 분할되어 좌로부터 송의재, 장경각, 내삼문 그리고 진덕재 등으로 다수의 시각틀(visual framework)이 형성되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중첩성은 심화된다(그림 13 참조). 이렇듯 환연루와 청절당에서 조망되는 중첩경관은 전후면 시점에 따라 공간의 깊이감과 방향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

그림 13. 「뜰에넣기」를 통한 조망경관

지만 시각적 연속성과 함께 공간의 깊이는 시각적 투명성(transparency)을 유발시킨다. 이는 비단 필암서원 고유의 현상으로 보기는 곤란하지만 타 서원에 비해 확연루와 청절당 그리고 우동사의 영역성과 중심성 강화에 의해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경관독해의 양상이다.

3) 재실 툇마루 높이를 통한 위계성의 구현

서원과 향교는 어느 공간보다 직설적인 조형형식으로 어울림의 집단적 위계성을 표현하였다(임석재, 2005). 하서를 모신 우동사를 축선상의 마지막에 두어 위계성을 높인 것 이외에는 평지 구성적 특성상 위계성의 표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확연루는 단이 없으며 청절당은 1단의 기단 위에, 그 뒤에 재실과 사당은 2단의 기단 위에 조성함으로써 기단의 높낮이를 통한 위계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징적인 위계성은 재실의 툇마루에서 발견된다. 즉 그림 14와 같이 동재인 진덕재와 서재인 송의재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규모로 단순한 민도리집양식으로 길쭉하고 평활한 형태이나 입면의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¹⁴⁾. 진덕재 전면에는 대청과 좌우에 2개의 협실(夾室)을 구성하였으며 측면에 툇마루(툇간)를 붙였다. 특이한 점은 양끝 방쪽의 툇마루가 가운데 대청 부분보다는 높다. 즉 약 20cm 마루면 높낮이 차를 보임으로서 입면의 시각구조를 통한 모종의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서재 송의재는 동재와 유사하나 대청이 없이 4개의 방과 방문을 갖춘 형태이나 역시 진덕재와 동일하게 마루면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위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서재는 대칭균형을 통해 강당마당을 위요하는 기능은 동일하나, 파사드(facade)의 형태와 툇마루 높이의 변화를 주어 변화 속의 통일을 유지하면서 서원 고유의 기본적인 위계성을 보완하고 있다.

a. 진덕재(동재)

b. 송의재(서재)

그림 14. 동·서재의 입면 형태 비교

IV. 결론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후보 9개 서원의 보편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특수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별성 탐구의 일환으로 장성 필암서원의 입지 및 장소성 등 의미경관적 요소와 서원내 공간 및 시각구성에 담긴 경관 의미를 독해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경관 독해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지도 분석 결과, 지도에 표기된 서원명은 '필암서원', '필봉서원', '김하서서원', 필암원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필암'은 곧 '필봉'이며 이는 '김하서'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서원의 배산 필암산과 서원 남서쪽 1.1km 떨어진 맥동마을 초입에 위치한 필암 즉 붓바위는 필암서원 장소정체성 구축의 핵심이어서 김인후의 상징어이기도 하다. 이는 필암서원이 주배향자로서 김인후와 연고성을 바탕으로 한 깊은 인걸지령(人傑地靈)의 관계로 엮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필암서원의 입지는 문필산과 통안천에 의해 뚜렷한 배산임수의 형국을 이룬다. 필암서원의 풍수형국은 단봉합서형(丹鳳含書形)으로, 함서를 물고 있는 단봉의 주둥이인 혈(穴)에 사당 우동사가 택지되었다고 해석되며, 죽전(竹田)을 배후로 묵죽도를 보관한 경장각의 귀공포 추녀의 봉황조각에서는 하서와 봉황(머리)을 일체화하고자 했음이 발견된다. 풍수지리를 반영한 필암서원의 터잡기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식 결과임이 읽혀진다.

셋째, 건물의 이름짓기에서 보여주듯이 필암서원의 당호 역시 성리학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학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필암서원 고유의 시설인 경장각의 '경장(敬藏)'은 '왕가 조상의 유물을 공경(恭敬)스럽게 소장(所藏)하라'는 의미에서 연유되었음은 다른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호경관적 모습이다.

넷째, 필암서원은 강당 전면은 창호로 폐쇄하여 외부시선을 차단하는 한편 배면은 최대한 사당으로의 조망을 개방하는 배치형태를 취함으로써 「전당후재(前堂後齋)」형 배치 서원 중에서도 사당과 강당이 교접하는 마당의 중심성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제향공간과 유식공간의 내심은 강학공간으로 치우쳐 형성되지만, 교접공간에 경장각과 계생비의 배치를 통해 마당 영역과 건물영역의 중심이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교접마당인 중정은 개별 요소를 집중시키면서 시각적 충돌을 완화하며 통합(unity)을 창출하고 있다.

다섯째, 필암서원의 제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유식공간은 각각의 영역성을 가진 채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다.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건물영역/마당영역의 비는 거의 1 : 1로 시각적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유식공간 또한 확연루와 청절당 사이에 연당과 정자가 존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진 초기 필암서원의 3개 공간은 공히 확고한 영역성과 보다 강한 내부지향적 중심성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여섯째, 필암서원에서의 강당마당과 제향마당이 합치되는 점점은 정제된 중정(中庭)을 형성하고 있다. 협문을 통한 제한적인 접근체계로 닫혀진 중정에서는 4방·8방 등으로 시선이 방사됨으로써 매우 강한 구심력이 유발된다. 더불어 분합문과 창호구성은 강당과 사당 그리고 동·서재로 위요된 중정의 내부구심적 중심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일곱째, 확연루와 청절당에서의 '뜰에넣기'를 통한 중첩경관

은 전후면 시점에 따라 공간의 깊이감과, 시각적 연속성 그리고 깊이를 통한 시각적 투명성을 유발시킨다. 한편 동·서재는 대칭균형을 통해 강당마당을 위요하는 기능은 여느 서원과 동일하나, 파사드(facade)의 형태와 뒷마루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서원 고유의 위계성을 보정하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 일대가 퇴계 이황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필암서원 일대는 하서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다. 필암서원에 나타나는 공간 및 시각구성상의 특성은 물론 서원을 지행해 간 주체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서의 태생지와 필암, 그리고 풍수지리를 반영한 서원의 터잡기 등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천인합일사상의 인식 결과였으며, 공간 및 시각구성상의 경관짜임에 드러난 중심성, 영역성 그리고 위계성의 구현은 성리학적 사상체계가 서원 조형을 통해 보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구현되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되고 새롭게 드러난 필암서원의 의미체계와 미학적 질서의 독해는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 결과이다.

본 연구는 내적 외적 본질에 다가서기 위한 실험적 융합방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전개상 의미경관적 특징 및 배치도에 근거한 조형미학적 분석을 병행함으로 파생된 이질적 논리구조의 혼탁성이 야기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또한 필암서원 뿐만 아니라 맥동마을 일대 하서 유적지로의 경관적 의미 확대는 본 연구에서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후속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 주 1) 본 연구에서의 '경관적 재구성'이란 필암서원 조형자의 의지와는 다른 재음미되고 재해석된, 필자에 의해 일찍이 경관미미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경관의 독해가 대부분 조형자의 경관 구성 및 표현 의도는 대체로 독해자의 설명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적일 수밖에 없음에서 출발한다.
- 주 2) 1975년본 「필암서원지」는 12권 4책본과 12권 3책본(天·地·人)이 전하고 있다. 1975년 5월 1일에 「院長先生案」, 「奴婢譜」, 「執綱案」 등이 〈필암서원 문적일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587호]로 지정되는데 서원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http://www.seowonstay.com>).
- 주 3) 병계는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인 遂菴 권상하(1641~1721) 문하에서 수학, 우암의 학통을 계승한 대표적 학자로, '강문8학사'의 한 사람이었으며 예산 가야계곡에 伽倻九曲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필암서원 강당 청절당에 걸린 '筆巖書院' 편액 또한 그의 작품이다.
- 주 4) 筆巖書院(1975), 筆巖書院誌 卷一, "顯廟宣額以筆巖先生故里有巖對立形似筆銃而院在數里弱以此仍號", 묘정비는 고종9년(1872년)에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지었다. 여기에는 서원 설립과 이전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사액 시기, 필암의 명칭 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판각 아래에 강당과 동재 및 서재의 명칭, 문루의 명칭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주 5) 양택풍수는 인걸지령의 믿음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김정수, 2012: 171). 부연하면 원백동과 난산정 사이의 '맥동알들' 주변에도 하서 관련 유적과 경관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하서 묘소와 신도비를 비롯하여 하서유허비, 백화정, 난산 망곡단과 난산비, 여사리 등이 그것이다. 마을에 있는 '하서선생유허비'는 바로 이곳이 하서의 탄생지임을 알리고 있다.
- 주 6) 경장각은 필암서원의 부속건물 중에 확연투와 함께 팔작지붕의 형태로 작지만 필암서원 내 건물 중에서 가장 화려한 단청을 보인다. 먹물을 상징한 묵죽도가 보관되어 있다.

- 주 7) '확연투기'에 의하면 '정자의 말에 군자의 학문은 확연하여 크게 공정하다 했고, 하서 선생은 맑고 깨끗해 확연하며 크게 공정하므로' 우암이 특별히 '확연'이란 두 글자를 택했다고 한다.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夫天地之常, 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 以其情順萬事而無情. 故君子之學莫若廓然大公, 物來而順應)" - 『定性書』
- 주 8) 필암서원을 형성하는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상을 한 평지인데, 궁궐 정문이나 왕릉 안에 흐르는 명당수를 건너는 禁川橋가 있는 것처럼 필암서원 전면에는 최근 정비한 계류가 가로지르고, 그 위로 1968년 필암교로 명명된 다리가 표시되어 있어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인지시킨다. 이 계류는 폭원 1.2m, 깊이 1.2m 그림 12의 「서원전도」에는 '溝橋'라고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 뒤로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자리하고 있는데 문루 폭원은 5.6m로 다른 서원에 비해 좁다는 느낌이 든다. 홍살문 좌우에는 크기 1.2×1.0m, 높이 12cm의 하마석이 좌측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수고 19m, 둘레 2m, 추정 수령 230년의 서원목 은행나무(전남보호수, 제704호)가 있다.
- 주 9) 기호학과 송준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서원이 영남지방에 설립된 것은 그가 상주목사를 역임하였으며 상주 출신 우복 정경세(1563~1633)의 사위라는 연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주 10) 계생비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로, 祭官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쓸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 주 11) 박정혜(2011: 32)는 필암서원이 八路四路黃泉方과 波丘가 동시에 해당되는 서원으로 비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한 바 있다. 그 근거로 경외에 조성한 三然亭과 芙蓉池를 들었으나 이들 시설은 필암서원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이루어진 것이다.
- 주 12) "百年安宅欠經營 最愛河西保性情 今到祠前答一拜 春風如舊繞溪亭". 필암서원, 「筆巖書院誌」 卷之三, (필암서원, 1975), p.1.
- 주 13) 위로는 樓이고 아래로 門으로 그 규모는 예전 그대로이지만, 산을 두르고 물을 다다라보며 듣는 것을 새로워진 것이다. 우물은 조출하고 골목은 좁으니 顏亭의 풍류는 변하지 않고 연못은 향기롭다. 들은 푸르고 謙門의 吟弄은 가이 없다(필암서원, 1975, 「筆巖書院誌」 卷二, p2) 개인용
- 주 14) 동재인 진덕재는 중앙 2칸이 마루로 되어 있고, 좌우측 1칸은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서재인 승의재는 좌측부터 차례대로 2칸의 온돌방·1칸의 마루·1칸의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인용문헌

1. 필암서원(1975). 「필암서원지」
2. 하서선생기념사업회(1980). 하서전집
3. 고경수(2013).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 분석 및 배치에 관한 풍수지리적 고찰. 동방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덕현, 이상호(2013). 한국 서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문화역사지리. 25(2): 15-36.
5. 김두규(2004). 우리문화 우리풍수. 하서 김인후 선생과 필암서원: pp.93-94.
6. 김상협(2000).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정수(2012). 풍수이론을 적용한 필암서원의 건립에 관한 연구. 연성대학교논문집. 47: 163-178.
8. 김진웅(1996). 仁宗昇遐와 金河西 節義. 동명출판사: p253.
9. 김치년(2011). 하늘에서 바라본 한국의 숨결. 제2권: p144.
10. 김홍식(2010). 전당후재형 서원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노송호(2006). 鄕校와 書院의 立地 및 外部空間 分析을 통한 韓國의 教育環境 摸索.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노재현, 신병철(2012). 중용(中庸)의 미학으로 살핀 도동서원(道東書院)의 경관짜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44-55.
13. 노재현, 신상섭(2009). 치(置)와 화(和)의 개념으로 분석한 남계서원의

- 정관짜임. 한국조경학회지. 37(4): 72-85.
14. 문화재위원회(2013). 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록.
15. 문화재청(2010).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연구 보고서. p44.
16. 박정해(2013). 서원건축의 비보풍수에 관한 연구.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 6(1): 26-36.
17. 변시연(1982). 하서선생과 필암서원. <상서> 4.
18. 邊時淵等編(1975). 筆巖書院誌. 文苑編刊會.
19. 성백호(2010). 周易傳義 上. 전통문화연구회: p170.
20. 송정현(1981). 필암서원 연구. 역사학연구. 10. 전남대사학회: 25-62.
21. 이원호(2011). 장성 筆巖書院의 식재현황과 정비방안.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 제1호 통권 제75호: 131-141.
22. 이희봉(2010). "심곡서원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및 마구잡이성 복원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19(4): 135-146.
23. 임석재(2005). 한국전통건축과동양사상. 북하우스.
24. 장영훈(2000). 생활풍수강론 : 풍수지리와 전통건축: 서울 기문당: pp196-200.
25. 장영훈(2011).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p216.
26. 조상순(1998). 筆巖書院 研究: 「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文化財. 第31號: 155-181.
27. 조상순, 이상해(1998). 筆巖書院의 建築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7(2): 63-76.
28. 천인호 (2011). 지명형성의 풍수담론: 봉향형국을 중심으로. 지명학. 17: 211-238.
29. 필암서원(1975). 『筆巖書院誌』 卷之二: p30.
30. 한지만, 우성훈, 권종남(2000). 단위 영역의 구성과 그 조합으로 본 한국건축 공간구성 방식: 선암사·필암서원·독락당을 대상으로. 세경대학교 論文集. 7: 39-69.
31. 함성호(2012). 함성호의 옛집 읽기<58>'제향 중심의 마당' 필암서원. 동아일보 2013년 2월 1일자 A30면 2단.
32. 黃英珠, 金正在(2003). 空間知覺에 따라 나타나는 道東書院의 現象的 透明性 表現에 關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12(3): 117-130.
33. <http://www.mw.or.kr>
34. <http://kyujanggak.snu.ac.kr>
35. <http://news.donga.com>
36. <http://www.culturecontent.com>
37. <http://www.heritagechannel.tv>
38. <http://www.namdokorea.com>
39. <http://www.orientalarchitecture.comkor>
40. <http://www.seowonstay.com>
41. <http://www.seowonstay.com>

원 고 접 수 일: 2014년 4월 22일
 심 사 일: 2014년 5월 21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5월 21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